

고은 불교대하소설

아귀노릇

'물...'을 외쳐대는 수원은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플 식수아귀가 되어 있었다

우녀가 본대로 수원이 아귀계의 고통 가운데서 길고 긴 굴속같은 굴주림에 처박혀 헤어지지 못하는 것도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떤 풍경속의 동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125

하지만 그런 굴주림속에 있는 수원 그 자신의 고통은 짐작 그 누구의 연민 따위도 아무런 뜻이 없는 상태의 극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같은 아귀계는 인간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말고도 인간계 안에서 얼마든지 부딪치게 되는 것을 어찌라. 심지어 인간계 대부분의 삶은 굴주림으로부터 도저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인간계의 역사는 굴주림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굴주림을 벗어나는 일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생존이라면 그것과 함께 수많은 고통을 함께하며 펼쳐 내던지는 그런 웅장한 자유야말로 진정한 해방과 해탈이 아닐 수 없다.

해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해탈이 아닌 모든 상태를 훨훨 불태워 불태운 연기 한가닥조차도 다 소멸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 수원의 굴주림은 바로 그런 아귀계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다른 모든 고통으로부터도 높이 떠 있는 독수리의 그 느릿느릿 떠 있는 동작 이상으로 벗어나야 할 해탈의 자적(自適)이 되어 마땅하리라. 이 세상 어디에 그런 경지가 있었는가.

그런데 그것도 끝내는 하나의 모양(相)으로 그려지지 않을 수 없다. 모양! 이것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어찌없는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모양을 없애라! 모양을 없애라! 하고 외쳐대거나 그렇게 해서 모양을 없앤 나머지 그 모양 없음(無相)은 그것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없는 상태 자체가 또한 끝없는 모양이 아닐 수 없다(無相而無無相).

우녀는 멀리 아귀계의 수원을 불러보았다. 아귀계의 중생에게는 뛰어난 청각이 갖추어져 있어 우녀의 소리를 듣고 한 동안 수원은 굴주림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었다.

“수원님! 제법 오랜만입니다.”

“수원님!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굴주림이 끝나면 바로 일체의 굴레로부터 열기 싫기 가시던들 속에서 뛰쳐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인가요?”

“수원님! 나... 나를 알아보셨어요?”

“.....”

그런데 수원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기는 하나 그의 말이 우녀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이다. 수원의 어떤 소리도 우녀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소리조차도

소리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굴주림 속에 빠져있는 것인지 모른다.

하기야 오랫동안 굴주림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기 전에 호지부지 바람에 날려가 버리기 십상이다. 또한 굴주림에 빠져있는 상태는 일단 입을 열어서 말을 주고 받음 최소한의 힘도 지낼 수 없는 것이다.

중생은 중생의 괴하다.

“물...”

“물...”

“물...”

“물...”

이런저런 민들레 씨앗이 전혀 우연스럽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뜻밖에도 아귀계의 수원이 외치는 소리가 아득히 먼 소리로 들려왔다. 우녀의 밝은 귀

나 지렁이나 모기 따위 미물들 물속에 집어넣어 죽인 일의 업보가 바로 식수아귀로 태어나는 것으로 된다. 과연 수원은 무욕도량의 명상 뜰에 끝마무리나 저고리 안에서 잠은 이(蠶)를 물그릇에 띄워 익사시키는 일을 자주 보여주었다.

그럴 때마다 파편이 수원에 한 마디 내던졌다.

“그렇게 물에 띄어놓아 죽이면서 무슨 놈의 열별은 그리도 청승맞게 중얼거리는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무 뒤 극락 갈 것 같지도 않구려... 죽일테면 빨리 손뼉으로 눌러 빨리 죽여버려... 차라리 그런 상생의 업보를 피하지 말고 받아 내생의 자옥에 가 지옥 공부라도 하게 나... 사나이가 좁스럽기는...”

수원이 그 때의 이를 물그릇에 띄운 일로 식수아귀 노릇을 하는 것인지 다른 업

보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식법(食法) 아귀가 있어서 그 아귀도 보아야 하는 우녀는 괜히 아귀계 쪽을 향하고 있는 그 자신의 영식(靈識)이 인뿔아졌다.

식법아귀란 또 무엇인가.

마치 중생도 가야산이나 덕숭산 칠갑산 계룡산 등지의 가파로운 바위바탕과도 같은, 지금도 용남할 줄 모르는 험준한 암벽을 타고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는 그런 아귀의 나날을 사는 중생이다.

살갓은 흡사 바위바탕처럼 거칠거칠하고 거칠다. 눈물은 비오듯이 흘러 내리고 땀도 흘러내린다. 그런데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굴주림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날의 생에서 가담치 않은 명리(名利)에 탐닉한 일덕 장터기나 의사 버락부자 등이 바로 이런 과보를 받고있는 것이다.

“화신(護身) 아귀?”

우녀는 또다른 아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바로 수원이 있는 곳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그 화신아귀가 있었다.

얼굴도 없다. 물론 얼굴이 없으니 눈도 없다. 손발은 가마솥 다리처럼 되어 있었다. 심장은 무려 4미터나 뿔직하게 몸 안으로 뜨거운 불길로 가득차서 꼭 작은 용광로 같기도 하였다. 그런 불길이 내장을 마구 태우는데 아무런 태워도 태워야 할 내장은 끝이 없었다.

생애 재물을 탐한 욕심꾸러기가 받는 마지막 과보로서의 고통인 것이다.

우녀는 그의 섬 암굴 처소의 어둠속으로 돌아온지 꽤 오래이건만 아직도 수원이 있는 아귀계의 이곳 저곳의 험담한 아귀업 공경이 더욱 더 열렬하게 나타나는 것을 괴할 수 없었다.

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귀의 이름이 ‘희망(希望)’이라는 것이 매우 그럴싸하지만 그것은 이름이 그렇다는 것일 따름이었다.

실로 못생기고 비참한 물골이 되어 불탄에 처러놓은 오래된 재물 밖에 얻어먹지 못하는 아귀인 것이다.

아귀 가운데는 번귀기귀(變異奇鬼)도 있다. 재 태거리를 깨뜨려 뇌수를 찍어먹는 아귀, 재가 남은 아귀를 먹어야 하는 아귀, 무덤 속의 벽은 시체를 먹는 아귀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연안바다의 무욕도와는 달리 난바다 한 폭판의 고도에 살고있는 아귀도 있다. 그 섬에는 한 그루의 나무도 시냇물도 아무것도 있을 게없다. 도대체 그 섬의 유일한 생물이란 아귀 자신 뿐이었다.

한여름 더위의 1천배나 되는 무서운 혹 열(酷熱)이어서 작고 아래의 여름보다 더 덥다. 아니 더운 것이 아니라 온몸이 타들어가는 뜨거움이고 쇠가 녹아버려 엇가락이 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의 갈증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물 한 방울이 있지 않다. 있는 것은 오직 짜디싼 바닷물이었다.

다만 그런 아귀업에도 이런 아귀 부지

런히 일어나면 아침이슬 몇방울을 받아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아귀는 지난 날의 생에서 불쌍한 사람의 물품을 사취한 업보의 중생이었다.

또한 백백한 나무를 다 베어낸 뒤 땀땀으로 만든 인간도 이런 아귀가 되어 마땅하였다.

풍, 꽃물, 피고름 그리고 피와 오물, 시궁창물, 벽은 눈, 오래된 시체가 구더기들이 늘어놓아 있는채로 동풍 떠있는 곳은 울렁이에서 사는 아귀는 그대로 편찮은 것인가.

수제 배는 커다란 짐재인데 입을 바늘 구멍이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귀...

이렇듯이 아귀계는 그나마 조금씩 먹을 수 있는 아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귀들도 있다. 무재(無財)아귀는 먹을 것을 입에 넣지마자 죽각 불길이 되어 아귀의 내장을 마구 태워버리기 시작한다.

우녀는 그 자신도 그런 아귀의 업보에 떨어져서 새로 고통의 수행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인간계 실상을 비추는 아귀세계
우녀는 자신도 아귀업보에 떨어져
새로 고통의 수행을 할지 모른다는...

나만을 만나면 나만을 말하고 아귀를 만나면 아귀를 말하도다(逢羅漢說羅漢 逢鬼說鬼).

한 선사가 이런 따위 자유자재한 말을 저 건너에 던져서 탁! 소리가 났다한들 지금의 우녀한테는 수원이 살고 있는 아귀세계의 현실 자체가 인간계의 현실 그것이기도 함을 조금씩 통어오르는 새 뼈치림 따지며 깨달을 수 있었다.

아주 비싼 이자를 받아내는 고약한 대금업자도 아귀의 길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고 남의 물건이나 돈을 사취한 자도 아

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귀의 이름이 ‘희망(希望)’이라는 것이 매우 그럴싸하지만 그것은 이름이 그렇다는 것일 따름이었다.

실로 못생기고 비참한 물골이 되어 불탄에 처러놓은 오래된 재물 밖에 얻어먹지 못하는 아귀인 것이다.

아귀 가운데는 번귀기귀(變異奇鬼)도 있다. 재 태거리를 깨뜨려 뇌수를 찍어먹는 아귀, 재가 남은 아귀를 먹어야 하는 아귀, 무덤 속의 벽은 시체를 먹는 아귀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연안바다의 무욕도와는 달리 난바다 한 폭판의 고도에 살고있는 아귀도 있다. 그 섬에는 한 그루의 나무도 시냇물도 아무것도 있을 게없다. 도대체 그 섬의 유일한 생물이란 아귀 자신 뿐이었다.

한여름 더위의 1천배나 되는 무서운 혹 열(酷熱)이어서 작고 아래의 여름보다 더 덥다. 아니 더운 것이 아니라 온몸이 타들어가는 뜨거움이고 쇠가 녹아버려 엇가락이 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의 갈증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물 한 방울이 있지 않다. 있는 것은 오직 짜디싼 바닷물이었다.

다만 그런 아귀업에도 이런 아귀 부지

런히 일어나면 아침이슬 몇방울을 받아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아귀는 지난 날의 생에서 불쌍한 사람의 물품을 사취한 업보의 중생이었다.

또한 백백한 나무를 다 베어낸 뒤 땀땀으로 만든 인간도 이런 아귀가 되어 마땅하였다.

풍, 꽃물, 피고름 그리고 피와 오물, 시궁창물, 벽은 눈, 오래된 시체가 구더기들이 늘어놓아 있는채로 동풍 떠있는 곳은 울렁이에서 사는 아귀는 그대로 편찮은 것인가.

수제 배는 커다란 짐재인데 입을 바늘 구멍이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귀...

이렇듯이 아귀계는 그나마 조금씩 먹을 수 있는 아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귀들도 있다. 무재(無財)아귀는 먹을 것을 입에 넣지마자 죽각 불길이 되어 아귀의 내장을 마구 태워버리기 시작한다.

우녀는 그 자신도 그런 아귀의 업보에 떨어져서 새로 고통의 수행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림·조향숙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 (불교문화예술원 원장)의 생필(眞本)

玉石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教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선착순 한정본(종) ●주문 신청방법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작가이력

- 중화민국 문화대학 국제서법학 전공정 수료
- 중화민국 정계 신문예학회 초청 국제 서법 초대전 출품(2회)대만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중화민국 서법교육회초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장각미술 대상수상
- 대한민국 88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한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품(약70만개)조사본을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예술문화원 원장

雲藏法師 禪筆 硯會

☎ (02)242-0331 · 242-0255

천천옥산가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피릿피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용-주사제, 이 가약을 청정하게 가공(ISO, 청정약을 때문)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때문)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뒷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호르몬 활성화 때문)

★ 장래의 집중력, 공부의 능력이 증가합니다. (호르몬의 제어) 때문입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들었습니다.

복견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1년치별 환자상태 임상실험 결과

환자증98.9%, 심장질환자 92.9%, 위염환자 91.3%, 저혈당증91.3%, 두통83.3%, 오한발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저우 효과를 기록했다. (3.2.17 서울신문)

독특한 맛이 서양인은 어렵다. 그러나 반드시 복용하여 인체는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되어 있습니다.

玉山家 藥行을 통해서 사시면 요금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레딩 대학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후원번호)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상),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지리산 참솔 (松葉汁)

한국일보 주최 기부가 마라톤 대회 및 각종 행사의 협찬품으로 선정!

최근에 솔잎이 각종 순환기 계통은 물론 질병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참솔은 약용(70%)을 영지, 반공, 감초, 검정콩등과 세합 농축한 자연식품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현대인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참솔은: 각종 스트레스와 피로한 휴면, 염주로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신 분, 손발이 저리고 땀이 뻘뻘한 경향을 하신 분, 현역 및 퇴직으로 인한 구력고 고생하시는 분, 골다공증을 예방하여 고혈압, 중풍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특히 여리를 맑게하여 공부하는 학생에게 좋습니다.

지리산 영농조합법인에서 각고의 노력끝에 정직과 자존심을 걸고 지리산지역 허공청정지역 참솔에서 實를 들었 고 자란 참솔을 소개해오니 전국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1박 2-3일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제 조 (주) 코리아헬스 팜 지리산영농조합법인

● 대리점 및 영업소 모집중

서울사무소: 서울 동대문구 정안동 364-3 (경순B 401호) 공성경점장 (02)247-4667/8 FAX (02)213-3984 B.B. 015-456-8930